

음식물 재사용 이어 폭염·장마... ‘식중독’ 불안 확산

북구 식육식당 잔반 재사용 ‘충격’
고온다습 기후 먹거리 안전 비상
남원 초중고 대규모 식중독 발생
교육청, 학교 급식 위생 특별점검

최근 광주 북구의 한 식육식당에서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된 데 이어 연일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면서 식중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 의해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식육식당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방송에는 손님이 먹고 남은 김치와 양념 등을 다시 모아 양념통에 넣는 등의 모습이 공개됐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의 긴급 점검 결과 해당 식당에서 잔반 재사용, 유통기한 만료 식자재 보관, 냉장창고 위생 상태 불량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지역 외식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폭염이 이어지고 본격 장마철에 접어들며 식중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과 유독물 등이 발생하는 감염성·독소형 질환을 의미한다. 미생물 번식과 식품 변질이 쉬운 고온다습한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4~5일 정도 증상이 동반되며 대부분 자연 회복되지만 심한 경우 탈수, 혈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 식중독 발생 건수는 광주가 △2021년 11건(50명) △2022년 6건(40명) △2023년(잠정) 11건(906명)이며, 전남은 △2021년 13건(145명) △2022년 13건(81명) △2023년(잠정) 11건(169명)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여름철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현기(25)씨는 “최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복통에 시달려 수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며 “지난달 광주 한 식당의 잔반 재사용 보도에 이어 외식 후 배탈 등으로 고생하게 돼 여름철 음식 섭취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본격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외식업체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음식점 업주들은 여름철 식자재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서구에서 10여년간 배달음식점을 운영해 온 A(55)씨는 “북구 식육식당의 보도를 보며 외식업체 종사자로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업주 때문에 손님들의 불안이 생겨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장마철에 접어들어 제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식기류 및 매장 내 청결, 위생 상태 유지·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다. 손님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 건강위생과 관계자는 “지난해

말 광산구 배달업체발 대규모 식중독 발생과 북구 식육식당 음식물 재사용 사건 등 지역 내 식품 위생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구 등과 협의해 중점적으로 관리·예찰하고 있다”며 “식중독 등 질병과 관련해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 시 유관기관 협력·역학조사 등을 통해 추가확산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 남원시에서는 1000여명 규모의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남원지역 초·중·고교 24곳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103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북 남원 전체 초·중·고교생(6823명)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학교가 함께 납품받은 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유통·판매가 중단 조치됐다.

광주·전남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 위생

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동부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난 3~9일 장마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단을 구성, 학교를 방문해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아직 관내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모든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철저한 위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초복 위생점검

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이 최근 초복을 앞두고 양산동의 한 닭·오리 식육포장 처리업체에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북구는 7월 한 달간 닭·오리 소비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 제공

‘칼부림 사건’ 모방범죄 예고글 장난삼아 게재한 10·20대 유죄

현역 장병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미성년자 공범, 가정법원 송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던 중 SNS에 장난삼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이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역 장병 A(21)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8)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촬영한 사진과 함께 ‘(특정 지역)사거리 칼부림’이라는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게시,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을 흉기 난동 예고성 글을 게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 40여명이 긴급 배치되는 등 경찰력의 상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에는 같은 해 7월과 8월 사이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 일대에서 연이어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국민적 불

안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이들은 이륜차 배달원으로 일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범행 당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CCTV영상과 관련 게시글을 5차례 본 직후 A씨에게 찾아가 장난삼아 흉기를 든 채 사진을 촬영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미리 챙겨온 흉기를 들고서 있는 모습을 촬영해 췌고, B군의 인적 사항과 해당 사진, 흉기 난동 예고성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했다.

범행 직후 수사에 나선 경찰로부터 연

락을 받은 B군은 흉기를 황급히 아파트 단지 화단에 버리기도 했다.

재판장은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시점에 칼부림을 예고해 협박하는 모방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다수 경찰관들이 출동해 낭비된 공권력이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예고한 범행을 실행할 의사 또는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기자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_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080-234-6588

그린궁_宮 프라임에버 120

알로에겔, 대두이소플라본

알로에겔, 대두이소플라본은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첨가물
무색소
무설탕
무인공정